

세라믹 소파 오브제 안내사항

제품명 하나의 나

소재 도자기

크기 80×80×53mm(W×D×H)

제조사·주소·연락처

수다도자기·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116번길 16-1 1층.

0507-1396-1314

안내사항

- 충격에 의한 파손에 주의하시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 수공예 공정으로 제작되어 제품마다 색상과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도자기 제작 과정의 특성상 작은 기포와 미세 균열, 미세 굴곡, 철점, 자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센트 드롭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향의 문양이나 훈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센트 드롭 안내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CB22-12-1820

품목 방향제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제조연월 제품 별도표기

제품명 나의 소우주 센트 드롭

제형 액체형, 보충형(함침물형)

용량 10ml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제조사·주소·연락처

코리아씨에스알·경기도 가평군 축령로45번길 62-240 1층.

031-585-5159

사용 물질

주요 물질 식물성 에탄올, 향료(시스투스 오일, 호우드 오일,

엘리미 오일, 퍼 오일, 파솔리 오일, 베르가모트 오일)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세요.
- 용기를 만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세요.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피부가 민감하거나 순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화기 또는 열기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용급처치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피부 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세요.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 주세요.

판매자 재경가구산업(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29번길 8 | 1588-6007



이영순 × 자코모 × 한서형

CERAMIC SOFA DIFFUSER



JAKOMO

Elegant Rest, Scented To Comfort

세라믹 소파 오브제와 센트 드롭으로 구성된 '세라믹 소파 디퓨저'는
자코모 움니버스 [우리들의 소파 이야기] Episode 3
'쉬며 살며 잇는 나의 소우주' 전시를 기념하여 제작한 아트 상품입니다.

세라믹 소파 디퓨저는 부드러운 실루엣을 지닌
자코모 휴튼 젠워브 소파를 모티프로 하여 만들었으며,
특별한 향기와 어우러져 편안한 쉼의 가치를
더하는 동시에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해 줍니다.

| 세라믹 소파 디퓨저 구성 | 세라믹 소파 오브제 '하나의 나', 센트 드롭 '나의 소우주'



도예가 이영순

'수다도자기'를 운영하며 '기억', '결', '달'을 주제로 선, 덧입히기 등으로 질감을 살리고 조각보, 바늘땀 등 바느질 요소를 더하여 작업을 합니다. 처음 흙을 접했을 때부터 늘 중요하게 여기고 바랐던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시기마다 다를 테지만 서로가 하나인 듯 어우러지는 것. 작업에 담아내는 이야기와 재료들이 이질적이지 않고 각각의 결과물들이 서로 보완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대하는 이들도 편안함을 느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의 나

서로를 포옹하고 보듬어 주는 사물이 소파가 아닐까요? 자코모 휴튼 젠워브 소파는 어머니 혹은 연인의 품처럼 한없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흙을 다듬는 내내 그 감정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하나의 나'는 그 자체로 은은한 장식성이 드러나는 세라믹 오브제이자 향기를 담아내는 기능적인 도구입니다. '하나의 나'와 함께 일상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향기작가® 한서형

국내 1호 향기작가®로 경기도 가평에 지은 '존경과 행복의 집'에서 향기 정원을 가꾸며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로 향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타주 시인과 함께 「잠시향」 등 네 권의 향기시집을 출간했고, 대표작으로는 자코모 시그니처 향 '인 더 가든', 유동룡 미술관 '이타미준 시그니처 향',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 향' 등이 있습니다. 향을 다루는 일을 지극히 시적이고 영적이라 여겨 매일 명상을 하 고 '행복할 때만 향을 만든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나의 소우주

향기를 만들면서 이끼와 벌레들, 디람쥐들, 새들이 더불어 사는 아름드리나무 아래 소파를 두고 앉아 고개를 드는 상상을 했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깊은 숲에, 나의 소우주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기를, 나의 안전함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향기에 담았습니다. 시스투스, 엘레미, 호우드, 퍼, 파울리의 조화는 묵묵하지만 보드랍고 편안한 안식처의 향입니다.